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하여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두례 의원은 '부안형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현기 의원은 '24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특히, 부안군의회는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차원의 흑명나방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상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흑명나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고창군의회는 14일 첫날 본회의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이선덕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신 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의 집적화'를 주장했으며 의안심사에 있어서는 본회의 소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발의: 조규철 의원),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전가 규탄결의안(발의: 이선덕 의원) 등 2건과 상임위원회 소관 42건 등, 총 4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15일부터 20일까지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채선 생가터' 등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한편,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발사업 부담금 토지면적 상향 적용

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도시지역 990㎡→1500㎡·비도시지역 1650㎡→25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부안군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단, 특례 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귀속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임시 특례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과 서해안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만금 주변 개발로 관광객 및 생활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코코' 콘텐츠 캠프 참여자 모집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미디어콘텐츠… 3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마을 '코코' 콘텐츠 캠프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시와 청년단체 '코리아콘텐츠협동조합'은 지난 5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내장상동 송학마을에 미디어콘텐츠와 디저트를 소재로 한 청년마을 '코코'를 기획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총 14명의 외지 청년들이 5일 동안 '코코'에 머무르면서 정읍의 데이트코스를 소개하는 콘텐츠와 프로필 제작 콘텐츠 프로그램 '코코 프로덕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컬푸드'를 주제로 한 '디저트 개발 콘텐츠 캠프'로, 디저트를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보는 동시에 먹방, 요리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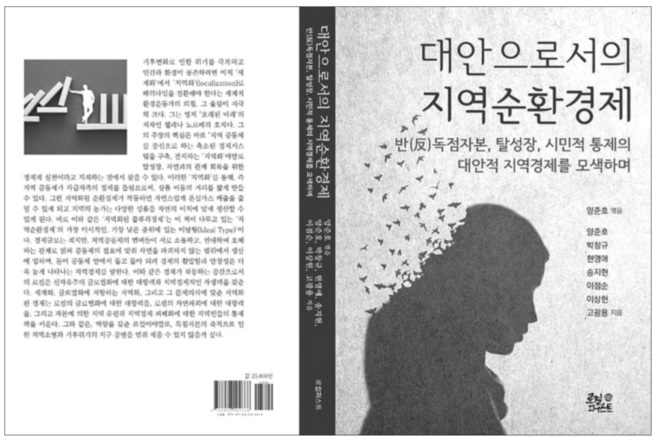
모집인원은 10명이고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청년마을 '코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인스타그램(youth__koc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소멸 극복·경제회생 전략모델 제시하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발간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연구소장 이희권, 이하 '연구소')는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경제 회생 전략을 담은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저로 출간한 책은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로 대표저자인 인천대 양준호 교수를 포함 7명의 교수연구자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최근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지역경제 전략으로 지역 내에서 소득과 소비, 생산과 영업이 이루어져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지역순환경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연구소 고광용 연구원은 마지막 7장 '지역순환경제와 주민·지방자치'을 썼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도농통합·농어촌 등 지역유형 및 산업특성에 따른 국내외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7가지 지역경제회생 전략모델을 제시했다.

그 연구원은 "농촌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유치 및 산업전략, 공동체자산화와 주민이익공유가 제1 전략"으로 보았다.

또한, "지역앵커기관 활용 경제수요 연결과 지역경제주체 연계 특화전략 산업 유치 기반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창출과 지역재투자"를 제2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무분별한 타 지역 성공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유형과 산업특성, 주민공동체 및 지역청년들의 역량을 고려해 외부 투자를 적극 허용하면서도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 중심의 지역경제회생 전략을 기획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

부안군은 추석 연휴기간(28일~10월 3일) 중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병·의원 18개소, 약국 18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를 문 여는 병·의원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진료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을 중심으로 응급 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세부 운영 일정은 부안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응급의료 정보센터(www.e-gen.or.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표창

안전문화 확산 추진 실적 부문 인정 받아

정읍시가 2023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예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5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운동이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지역 내 건축, 생활여가, 환경 에너지, 교통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6개 분야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메탄 감지기 등 과학기술 장비를 활용한 점과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안전 점검' 확산에 기여한 점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실적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점검 결과 23개소에 대해 보수·보강 등 지적을 받았으나 1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 시설들은 예산을 확보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점검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식품기업 지원 사업 희망업체 모집

정읍시, 내달 13일까지 신청… 최대 3억 지원

정읍시는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4년 농식품기업 지원 사업' 희망업체를 10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소규모 식품소재·반가공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등으로 사업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으로, 주원료 국내산(전북산) 농산물 30~80% 이상 사용, 운영실적 1~3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모가 마감되면 10월 중으로 선정 사를 마치고 11월 중으로 예비선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세부 내용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63-539-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